

# 지자체 '공채' 임용자 전출제한 기간 5년으로 연장

## 한시임기제공무원 범위 확대...전문임기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현재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3년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도서·벽지 등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해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임용시험 공고시 반드시 포기에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주최자 등을 대체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은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에 같은 제도 지원을 확대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나갈 계획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역할 시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정년 외로 운영할 수 있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응시자격은 전문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총원 과정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인해 총원 예정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인원 미달에 따른 총·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직진출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하던 인사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해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가 장려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같이 경력경쟁신규임용자가 많은 경우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효율성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당중학교 '미들스타리그' 두 번째 우승컵 차지

인천 서구 고신로에 위치한 원당중학교(교장 고경수)는 11월 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6 인천광역시중학교 미들스타리그(축구)' 결승전에서 사리울중에게 2대 1로 역전승 하며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 11월 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원당중학교와 사리울중학교의 미들스타리그 결승전에서 원당중학교가 0대 1로 뒤진 후반15분 강우성(15)의 동점골과 20분 이주환(15)의 역전 결승골이 합입어 2대 1로 승리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우승팀인 원당중학교 참가 선수와 담당 교사에게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해외로 축구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준우승을 차지한 사리울중학교에는 스포츠 용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미들스타리그 대회는 인천 지역 내 중학교 134개교 가운데 여중 및 도지역 43개교를 제외한 91개 학교 중 82개교가 참가를 신청해 가장 큰 동원자 축구대회로 치러져 원당중학교가 우승의 행군대를 힘차게 데미를 장식했다.

# "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정보 신고하세요"

## 12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찾아내 삭제조치...1위 상금 100만원

보건복지부와 신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자살유해정보 집중 점검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물", "동반자살 모집", "유혹성 판매품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4188건(46%), SNS 2540건(28%), 포털사이트 1457건(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자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p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media@sp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에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수기 형식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신고대상은 우수한 참가자, 뜻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중점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지난 신고대회에 참여한 손자 씨(23·학생)는 "자살을 막는 방법은 '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해 '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홍보팀(02-2203-0053)으로 전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 외국인 주민수 171만명...

10년간 3배 증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 1013명이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0번째에 해당하며 전남(179만 9044명)보다 작고 충북(158만 9347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외국인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는 53만 6627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추진등록인구 대비) 1.1%, 2015년(총인구 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어렵던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더 친근하게

### 인전 명현중, SW 교육 체험행사 참여

지난 10월 20-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SW 교육의 활동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참가했다.

명현중학교(교장 김기택) 또한 SW 교육 체험행사에 참여했으며, 명현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헬스 로봇', '사랑 뽀빠 기계'와 관련제품과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한 휴대용 선풍기',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마쳤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SW 교육 체험행사는 일산 킨텍스 9층에서 체력할 수 있으며, 스크래처를 활용한 게임 만들기 체험하기, 전자 회로를 이용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 만들기 등 광범위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어렵다고 생각했던 의견이 대

수였던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을 더욱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주는 것에 큰 공약을 했다.

특히, 명현중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랑 뽀빠 기계'는 복합된 원리를 가진 로봇을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 코딩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직접 로봇을 조종해, 사랑을 뽀빠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회로의 원리를 배워주기 만들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를 한층 높여 갔으며, 은은하고 아름다운 조형효과를 지닌 소품 제작활동인 '무드등 만들기' 역시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명현중학교 [학생기자단 소나기] 3학년 김하늘

##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범국가적 캠페인 시작

정부가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범국가적인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을 맞아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을 알리기 위한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정전임 복지부 장관을 비롯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장인 이명철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운동본부위원 위촉식 수여, 캠페인 선로 이벤트, 운동본부 운영계획 발표, 캠페인 달 마시선생님 제작식 수여 등이 진행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5년부터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으로 정하고 나라별로 절정에 맞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벌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페니실린을 필수로 한 각종 항생제의 등장으로 감염병은 치료의 영역이 됐으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의 출현 및 확산

은 사망을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올해 5월 발표한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직면한 대응하지 못한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내성균에 의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9월에는 개최된 유엔 회의에서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글로벌 보건 이슈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도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대 ▲국제협력 활성화 등의 4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항생제 복용이 불필요한 경우 항생제 처방을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는 14일부터 일주일간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남겨둔 항생제 내성으로 막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기간 준수하기 등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청담동 도심형 플라자**  
신원아침도시 마인

# 청담동의 대박!

국내 유일의 최고급 빌라단지 정중앙!  
최고의 입지! 파격적 조건! 합리적인 가격!  
모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유치원 입점

SAT수업 입점

아파트 입점

방문판매 입점

국기포토 상권

02) 540-1160

청담대표상가 신원아침도시 마인

##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보육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영유아와 관련된 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가 자로 재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유치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용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한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유모차에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다.

영유아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할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책예고 전자장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